

PUBLICATION

재출간 도서가 늘어나고 있다

권태현 | 출판평론가

사명감이나 출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퍼 내지 않는 한 재출간 도서는 거의 대부분 다시 사라지고, 그중의 지극히 적은 일부만 간신히 살아남고, 살아남은 책 중에서 거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수의 재출간 도서가 계속 발간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출판 및 독서 풍토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재출간된 도서들의 면면

오래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반갑다. 예전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을 몹시 만나고 싶었는데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다면 더 반가울 것이다.

책도 그렇다. 우연히 서점에서 예전에 봤던 책을 다시 발견하면 참 반갑다. 새로운 편집과 장정으로 근사하게 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 사서 보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본문 내용이 더 잘 다듬어지고 보충이 되었다면 더 욕심이 생긴다.

최근 그렇게 재출간되는 책들이 많아졌다. 우선 눈에 띄는 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베를린 사건’이라는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과 독일의 여성작가 루이제 린저가 나눈 대담을 정리한 책 『윤이상 상처입은 용』(램덤하우스중앙). 이 책은 1988년 한울출판사에서 처음 발간되었는데, 윤이상 서거 10주기에 맞추어 금년에 발족한 윤이상평화재단의 설립 기념으로 재출간된 것이다.

의사 출신 영국 작가 이취볼드 조셉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섬앤섬)도 15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학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 이윤기가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윤기가 번역을 맡았다.

이태준의 『문장강화』(창자과비평사)도 개정판이 새로 나왔다. 1940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나 저자가 월북하는 바람에 금서로 묶였었고, 지난 1988년에 창작과비평사에서 재출간되었다가, 이번에 개정판이 다시 나온 것이다.

송나라 사신 서공이 1123년 고려를 다녀간 후 고려의 실상을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던 사행보고서 『고려도경』(황소자리)도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에

서 『국역 고려도경』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던 것을 이번에 현대적 문체로 바꾸고 그림 자료 등을 곁들여서 재출간했다.

코넬대 천체연구소 소장을 지낸 칼 세이건의 저서 『코스모스』(사이언스북스)도 독자들이 재출간을 무척 반기는 책이다. 이 책은 1981년 학원사에서 처음 출간되었으나 절판되었는데, 이번에 칼 세이건 재단과 정식 계약을 맺고 서울대 천문학과 홍승수 교수의 번역으로 새로 펴낸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처음으로 서방에 알린 『에드거 스노 자서전』(김영사), 아동문학가 이오덕 첫 수필집 『거꾸로 사는 재미』(산처럼), 최인호 장편소설 『불새』(여백출판사), 『지구인』(문학동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이 생겨난 배경을 다룬 『E=mc²』(생각의나무), 이외수 장편소설 『들개』 『벽오금학도』(해냄), 홍성원 장편소설 『마지막 우상』(문학과 지성사), 김성동 장편소설 『만다라』(청년사) 등이 최근 재출간된 도서들이다.

위의 책들이 최근 발간된 재출간 도서들 중에서 눈에 띄는데, 이들 책과는 다른 관점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시리즈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송포켓북 시리즈. 모두 100권을 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1차분으로 이문열 작품집 『아우와의 만남』, 이청준 작품집 『날개의 집』, 윤희길 장편소설 『낫』, 전상국 장편소설 『유정의 사랑』, 박영한 연작소설 『왕릉일가』, 윤후명 장편소설 『무지개를 오르는 발걸음』, 박범신 장편소설 『겨울강 하늬바람』, 이승우 장편소설 『에리직톤의 초상』, 이순원 장편소설 『램프 속의 여자』, 고은주 장편소설 『아름다운 여름』 등 열 권이 한꺼번에 출간되었다. 이 열 권 중에서 이문열, 이청준, 박범신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절판된 작품을 되살린 책들이다.

재출간된 도서들의 유형

최근에 재출간된 책들을 살펴보면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출판사에서 출판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출판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거나 품질된 책을 오랫동안 찍지 않고 절판시켰을 때 나타난다. 이럴 경우 저작권은 살아 있고 출판권은 소멸된 상태인데, 새로운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을 제안함으로써 재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이상 상치입은 용』 『천국의 열쇠』를 비롯해 국내 소설가들의 작품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내용을 보충하거나 곁들여서 더 알차게 꾸민 증보판을 펴내는 경우이다.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일부 내용만 수록되었다가 증보판을 내면서 전체 내용이 다 실리는 예가 종종 있다. 또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곁들여서 이해를 돕는 경우도 있다. 『코스모스』 『고려도경』 『문장강화』 등의 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로,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원작자와 정식으로 계약해서 다시 책을 펴내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출간되어 서점에 진열된 책들은 다 팔릴 때까지 그 효력이 유보되지만, 증판을 찍으려면 제대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원작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번역도 새로 하고 장정도 바꾸어서 재출간하는 예가 많다.

물론 이외에도 갑자기 영화나 드라마가 뜨는 바람에 원작소설을 재출간하기도 하고(『불새』),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독자들을 찾아나서는 경우도 있다(『들개』 『벽오금학도』). 이것 역시 크게 보면 사라진 출판권을 복원하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형태이면서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 판매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좋은 책을 살려야 한다

는 생각에서 재출간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우상』과 『만다라』, 그리고 일송포켓북 시리즈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일송포켓북 시리즈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포켓북이라는 형태로 책을 만들고, 싼 가격에 좋은 책을 많이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출간되었기 때문에 돋보이는 좋은 기획물이다.

한국문학이 많이 읽히지 않아서 많은 출판사들이 출간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권을, 그것도 보급형 포켓북으로 펴낸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시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서출판 일송포켓북 친봉재 대표는 “한국문학이 침체기를 맞은 것은 한국문학 자체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독자들이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한국문학 작품을 펴내면 큰 손해를 본다고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이 시리즈를 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에 나왔던 책이 재출간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직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연금술사』(문학동네)도 1995년 고려원에서 출간되었던 책을 다시 번역하여 펴낸 것이고, 『연탄길』(삼진기획) 역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3분의 1을 가져오고 나머지 3분의 2는 새로 써서 펴낸 것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해냄)도 1992년 실록출판사에서 『플루토늄의 행방』을 다시 수정하여 펴냈고, 『성자가 된 청소부』(정신세계사)는 『바바 하리 다스의 칠판』의 표지와 제목을 바꾸어서 출간한 것이다.

이렇게 재출간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책들은 극히 드물다. 교보문고 김태형 구매담당에 따르면 “입고되는 전체 신간 중에서 재출간에 해당하는 책은 3~4% 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보문고 최정욱 북마스터는 “입고되는 재출간 도서 중 열 권 가운데 한두 권



윤이상 · 루이제 린저 대담, 『윤이상 상처입은 용』, 랜덤하우스중앙, 2005

정도가 겨우 실망스럽지 않은 판매 부수를 기록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별 반응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명감이나 출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펴내지 않는 한 재출간 도서는 거의 대부분 다시 사라지고, 그중의 지극히 적은 일부만 간신히 살아남고, 살아남은 책 중에서 거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수의 재출간 도서가 계속 발간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출판 및 독서 풍토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한번 출간된 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힌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재출간이라는 형태로 다시 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재출간된 책들이 다시 재출간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출판 관계자들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서 재출간된 책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들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오래 장수하기를 기대해 본다. ✎